

## 學生運動의 指導問題와 大學의 教育的 使命

朴 性 洙

(서울大 教育學科)

### 1. 머리말

1988년은 한국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해이다. 노태우 정권의 탄생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민주화의 전개가 그 하나의 전환을 뜻한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고 또 적지않은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한국인은 자긍심을 가지고 국제화의 급격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 올림픽의 개최는 장애를 지닌 인간을 새롭게 지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되새김질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강한 인간화의 열정을 지닐 수 있게 하였다.

民主化·人間化·國際化는 한국의 새로운 時代精神이 되어 가고 있다. 오랜 인고의 세월 속에서 문재 의식을 지닌 운동권 학생들만이 아니라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간절하게 소망하던 꿈이 하나의 현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바치고 절규하던 그 외침의 소리가 그리고 무언 중에도 피를 말리는 듯한 간구의 염원이 너무나 뒤늦게 그러나 이제는 너무도 빠른 속도로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만들지 못한다”고 절망하던 이들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오고 있다”는 환희의 탄성을 울리기 시작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생 운동의 문제를 다룸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며 나아가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노태우 정권의 확고한 정치 철학이 아직 드러난 것도 아니고 인간화의 철학이 생활화된 것도 아니다. 아직도 북한, 중국, 소련 등과의 관계는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 또한 대학가의 시위와 불만과 분노는 여전히 강한 열기를 잃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운동의 문제는 아직도 제대로 이해되거나 정당한 교육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적대감에 압도된 오해로 보고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아름다운 기대를 걸고 있기도 하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은 학생 운동에 대하여 소박하나마 이중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정신분석학의 용어로 표현하면 학생 운동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입장은 兩價的 態度라고 볼 수 있다.

부모나 자녀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愛情과 憎惡, 關心과 無關心, 接近과 回避의 태도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처럼 학생 운동에 대한 태도에도 그러한 二重性과 兩價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객관적이거나 중립적 입장에서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학생 운동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양쪽에서 모두 공격을 받아야 했다. 학생 운동에 대하여 적대감을 지닌 세력이나 또는 애정을 지닌 세력이 다같이 그 문제에 관련된 과

학적 탐구를 적대시하여 왔다. 이는 ‘편들기’라고 하는 병리적 입장에서 사회적 행동을 하고도 덕적 판단을 하는 두 세력의 정신적 태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이러한 편들기를 정면으로 공격할 수 있는 지적 용기가 부족한 것에도 기인되는 것 같다.

## 2. 學生運動에 대한 터널 비전

이제까지 학생 운동은 정부의 일이나 체제를 반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왔다. 4·19 직후의 새생활 운동이나 농촌 계몽 활동 등과 같은 것이 있기는 하였으나 학생 운동의 주류는 정부를 비판하고 정권에 대하여 도전하는 내용들이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좌경으로 몰아 붙이려고 하는 학생 운동의 주류는 현재 한국의 정치·경제 체제에 대한 대안을 탐색하는 집단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특성은 가장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점이다. 그것은 정치권에서 이상적이고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조차도 반대를 하고 있음을 뜻한다. 국민적 합의라고 볼 수 있는 정치적 이상과 이념을 반대한다고 판단할 때 그 반대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하는 일은 그런 이상과 이념을 신념화한 집단에게는 무척 어려운 일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나 통치권을 가진 정치 집단에게 학생 운동은 참으로 거북하고 불편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으로까지 지각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통치권에 가까이 있는 집단일수록 학생 운동을 적대시하고 이를 없애 버리려는 의도를 여러 갈래로 표현도 해 보았던 것이다. 학생 운동에 대한 탄압과 억압적 정책은 대체로 통치권의 정치적 책략과 관련되어 있다. 체포·구속·교문의 비극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는 학생 운동은 증오에 찬 沒理解와 誤解에 이르는 것이며 객관적 증거의 수집이란 그런 오해를 정당화하는 증거물들에 불과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통치권에서 멀리 있거나 또는 통치권을 가진 세력을 적대적 집단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학생 운동은 아름다운 환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정권이나 체제 또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좌절을 보상받기 위하여 변혁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학생 운동은 사회 변화의 구심점이나 원동력으로까지 지각되어 왔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학생 운동은 구원의 세력으로 지각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적지않은 정치인들, 특히 야권의 정치인들에게 학생 운동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신 쟁취해 주는 힘으로 파악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학생 운동은 때로 야권의 정치인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동맹 관계를 유지할 때도 있게 된다.

학생 운동을 저지하려는 집단이나 또는 지원하고 활용하려는 집단이나 다같이 학생 운동을 정치적 시각에서 이해하고 정치적 책략에서 다양하게 대응하여 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학생 운동이 정치적 상황이나 정치적 이해 관계와 긴밀한 함수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순전히 정치적 관점에서만 학생 운동을 이해하는 것은 학생 운동이 지닌 정신·문화적 의미나 교육적 함의를 매몰시키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 더군다나 학생 운동이 지니고 있는 개인의 심리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해를 할 수 없게 한다. 정치적 관점이 교육심리적 이해를 억압하고 매몰되게 한다.

이제까지의 학생 운동은 정치적 시각에서단 파악되는 ‘애꾸눈 시각’하에 있어 왔다. 또는 동굴 시각관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법한 터널 비전(tunnel vision)이 지배하여 왔다. 부분적으로 학문적 논의나 연구가 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학과 사회의 중심에서 아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 3. 理性的 回復

학생 운동에 관한 학문적 논의나 과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또 객관적 논의가 설 자리를 못찾은 것은 이 문제가 격렬한 感情과 교조화된 信念의 횡포 속에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집권측에서는 학생 운동을 이해하거나 지원하는 듯한 말이나 글은 하나의 도발로 받아 들이기 쉽다. 야권에서는 학생 운동을 비판하거나 부정적 시각에서 논평하면 이를 어용

으로 물거나 일종의 반역이나 부역으로 치부하려고 한다. 학생들 자신은 객관적 기술이나 설명을 지식인의 기회주의적 특성으로 파악하거나 아니면 어용으로 몰아 붙이려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지식인들 사이에 학생 운동에 관하여 실증적 연구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禁忌가 되고 있다. 그 결과 학생 운동에 대한 이해는 심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원시인들의 자연 이해만큼이나 投射的이고 直觀的이며 我田引水格이고 非理性的이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우리가 학생 운동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를 위해서는 사회적 현상이나 심리적 현상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금기시하거나 천시하는 사회·문화적 풍토와 정치 지배 집단의 인식 체계의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진리’에 겸손히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삶의 자세가 요청되는 일이며 진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용기가 요청되는 일이기도 하다.

분명한 사실은 학생 운동에 관련하여 敵對感 내지 憎惡心을 어느 측에서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점이다. 운동권 학생, 정부, 우리 국민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증오의 철학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왔다. 이 증오의 철학을 어떻게 理性的 哲學으로 승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1988년 한국인이 직면한 최대의 정신적 그리고 현실적 과제라고 하겠다.

#### 4. 學生運動의 教育的 指導는 가능한가

학생 운동의 정치적 이해가 주도적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는 동안 이 문제는 교육자나 교육학자의 문제로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 없다. 교육이나 교육학이 정치적으로 오용되고 남용될 가능성이 그 만큼 높기 때문이다. 학생 운동에 대해서 교육자들이 순수하게 교육적 동기로 학생 운동을 지도하는 것조차도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왔다. 그 결과 학생 운동에 대한 교육자의 입장은 그것이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정치·경제와 같은 교외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운동권 학생의 지

도나 학생 운동의 지도는 항상 정치권의 지배하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정치적 측면이 주로 고려되었으며 교육적 측면은 별로 신중하게 다루어 오지 않았다. 결국 학생 운동의 교육적 지도라는 개념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 온 것이다.

과연 학생들의 ‘운동’은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없는 문제인가?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하거나 단순하지 않다.

학생 운동의 관심이 ‘혁명’이나 ‘체제 변혁’과 같은 것이라면 또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정치 과정의 일부라면 이것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권의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고 아무런 교육적 대응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 운동을 상담학의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두 가지 상반된 개념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학생 운동이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정치·경제·문화·교육·사회 구조 등의 문제에서 생기는 병리적 현상이 상징적으로 분출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 체험하는 욕구의 좌절과 참담한 현실 인식에 대한 사회적 표현이 학생 운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학생 운동을 현실 세계의 모순과 병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나아가서 이를 해결하려는 몸부림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학생 운동을 이상을 추구하고 理想的 社會를 건설하려는 노력의 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資本主義社會, 社會主義國家, 共產主義世界가 지니고 있는 모든 갈등과 모순을 완전하게 극복한 유토피아를 정신적으로 그려 보면서 이에 헌신하는 청소년의 몸짓으로 학생 운동을 이해할 수도 있다. 더 좋은 사회를 건설해 보겠다는 代案의 探索이 학생 운동의 정신적 지주를 이루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학생 운동에 대한 이러한 상담학적 이해는 그에 관한 교육적 이해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 운동을 어떤 시각에서 이해하고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탐색이 이러한 이해들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담학적 이해는 다른 이해들, 예컨대

정치·경제적 접근이나 사회·문화적 접근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다양한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함으로써 우리들은 혼동에 이르게 되지 않고 오히려 조화되고 통합된 파악을 하게 된다.

## 5. 어떻게 教育的 指導를 할 수 있는가

만약에 우리들이 학생 운동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 이 문제는 언제나 교육 외적 입장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반면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길을 탐색하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지게 된다. 학생 운동을 교육적으로 지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학생 운동 그 자체를 교육적 관점에서 지도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운동권의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것이다.

교육의 관점에서 학생 운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먼저 학생 운동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이란 과학적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조차도 요청되는 일이기도 하다. 현실 세계의 좌절과 모순을 다루는 사회적 과정에서 학생 데모나 학생 운동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면 교육하기 위하여 현실 세계를 분석하고 현실 세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교육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냉정하고 심지어 참담하기까지 한 현실 세계의 사실과 진실을 직시하고 이를 이성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격적 성숙이 요구된다. 격정과 분노의 심리를 현실 분석과 객관적 이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요청되는 일이기도 하다. 한국의 대학들은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준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非人間的이고 閉鎖的인 教育官僚制度와 抑壓的이고 獨善的인 統治 體制는 학원의 합리적 이성과 과학적 분석 능력을 오히려 적대시하고 파괴하려고 하였다.

合理的 理性과 科學的 分析을 억제하려는 노력은 정치·경제적 이상을 추구하는 활동에 대하여 어떤 면에서는 더욱 참담하게 이루어져 왔

다고 하겠다. 이상적 세계나 사회적 구조의 대안을 탐색하려는 시도는 자칫하면 思想犯罪가 되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두려워 하는 사회적 금기가 되어 왔다. 이상적 사회나 보다 합리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理想的 運動으로서 학생 운동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기 위하여는 政治·經濟·教育·文化·社會 등의 광범한 영역에 걸친 代案들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 운동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기 위하여 研究와 表現의 自由가 대학 사회에서는 거의 완전에 가까운 정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의 새로운 질서와 구조를 탐색하기 위해서 창조적 지성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분위기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와 우주로 향한 개방적 자세와 혼돈된 정보를 통합하는 주체적 의식의 형성이 요청되는 것은 두말 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이 학생 운동 그 자체를 지도하기 위한 준비 내지 태세의 마련과 함께 운동권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교육적 책비도 요청된다. 학생들의 개인적 문제를 지도하기 위한 활동은 생활 지도와 상담의 분야에서 그동안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그럼에도 운동권 학생들은 학교의 상담실과 별 다른 관련 없이 지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4공화국 시절에 대학의 상담실을 학생 운동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현장 지도 기관으로 전락시킨 것과 관련시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지도연구소를 학생생활연구소라는 지엽적 기능의 연구소로 변질시키고 학생처 소관으로 상담실을 두어 데모 진압이나 예방을 위한 현장 사무실 정도로 만들어 놓는 일을 교육 관료 체제에서 자행하였다. 이것은 학생 지도의 엄청난 후퇴를 초래하는 비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처사이며 운동권 학생을 개인적 상담을 통하여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치적 폭거이었다고 하겠다.

운동권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개인의 심리와 가정·학교·사회적 생태를 이해하고 개인의 성숙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

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은 첫째로 운동권 학생들을 異端視하거나 敵對視하는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배움의 길에서 다양한 社會的 代案을 探索하고 實驗하는 진지하고 성실한 學徒로 보는 ‘觀’의 변화이다. 그들을 과격적이고 적대적인 세력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동지적인 愛情과 關心을 가지고 있는 동료 인간으로 보고 교육적으로 지도하려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럴 때 ‘손에 손을 마주 잡고 장벽을 넘어서’ 서로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學習과 實驗의 場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운동권 학생들의 人間的 成熟과 社會的 價値觀 그리고 社會思想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화와 체험, 그리고 실험과 탐색이라는 교육의 장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신 분석의 이론에서는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다양한 政治·經濟·教育·文化·社會의 代案을 탐색하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면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左傾化’는 오히려 사라지며, 창조적 지성이 만개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필자만의 공상이라고 하

기는 어려울 것이다.

## 6. 새로운 世界史와 韓國史의 創造를 期待하면서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학생 운동은 정치적 변혁의 중심에서 어떤 면으로 보면 상당히 커다란 역할을 하여 왔다. 정치·경제·문화·과학·교육·사회 구조의 발전은 우리들에게 民主化와 國際化만 아니라 人間化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제까지 학생 운동을 보고 다루어 오던 정치권의 입장과 교육 관료 제도의 역할은 새롭게 되어야 한다. 학생 운동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주고 또한 적극적 후원을 하여야 한다. 만약에 통치 체제에서 학생 운동을 계속 정치적으로 다루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대립과 반목의 역사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 운동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성과 지적 탐구를 보장하게 된다면 한국인은 새로운 세계사에서 창조적 주역으로서 힘 있게 일하게 될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